목마른 사슴이 목축이는 百子千孫之地

〈백자천손지지: 백명의 자식과 천명의 손자를 거느리는 땅〉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32〉

■ '갈록음수형' 함평군 엄다면

당나라 때 저 유명한 시인 유우석(劉禹錫·772~842)의 누실명(陋室銘)에 '산이 비록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곳에 신선이 살면 명산(山不在高 有仙則名)'이라는 구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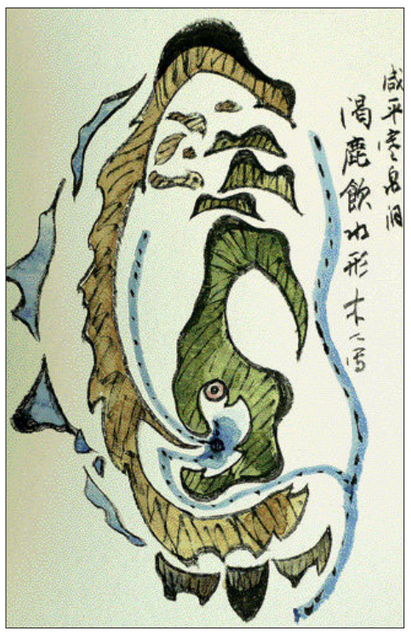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포향정 일대의 빼어난 산천풍광은 지금도 신선이 살고 있다고 여겨질 만큼 풍수적으로 아름다운 형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것은 반경 1㎞안에 곤봉산 낙맥의 쇠봉(牛峰), 말봉(馬峰), 개봉(狗峰), 천자봉(天子峰), 칠성봉(七星峰) 등의 범상치 않은 지명의 산들이 서로 웅자(雄姿)를 뽐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묘한 풍수적 형세와 강력한 서기(瑞氣)에 압도당하는 느낌의 길광복지(吉光福地)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쇠봉·말봉 서기어린 봉우리 즐비

흔히 명당은 모두가 비슷한 역량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 발응(發應)은 크게 부(富)·귀(貴)·손(孫)의 형태로 편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복하는 기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명당의 성정을 토대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조상의 유택을 정할 때 부귀보다는 자손이 번성하는 곳을 으뜸으로 여겼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마다 '한 조상에 열 자손'의 덕목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사회로 바뀐 요즈음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 때문에 자손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급기야 '열 조상에 한 자손'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물산이 풍족하여 집집마다 재물이 넘치고, 돈만 있으면 권력까지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집집마다 절손(絶孫)을 걱정해야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명당은 역시 '한 조상이 백명의 자식과 천명의 손자를 거느린다'는 소위 '백자천손지지(百子千孫之地)'일 것이다.


함평 한천동의 '갈록음수형(渴鹿飮水形)'

한천동(寒泉洞)의 목마른 사슴이 물가로 뛰어드는 형국은 소위 갈록음수형(渴鹿飮水形)으로서, 백자천손지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명당중의 명당이다.

이 곳은 일찍이 도선국사가 그의 답산가에서 "죽장(竹杖)을 재촉하여 함평 지경 넘어서니 달리는 사슴(走鹿), 너는 어이 용천(龍泉)을 옆에 두고 걸음을 바삐하여 산야를 향하는고? 간맥(艮脈) 12절에 혈성(穴星)이 원후하고 미와(微窩)로 생겼구나. 음사합금(陰沙合衾)이 분명하도다. 혈전(穴前)이 비습(卑濕)하니 알기 어려워라. 천문(天門)의 금성체(金星體)는 당국수(當局水)가 정방(丁方)으로 가니 만일 이를 찾아 쓰면 백자천손(百子千孫)에 발복이 장구하리라"고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당이다.

특히 평강룡(平岡龍)의 연주맥(連珠脈)에 의지하여 개국한 까닭에 마을에서 가깝고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호사가들이 욕심을 내는 땅이다.

한편 일지선사(一指禪師)는 이곳이 쌀을 쓿을 때 쓰는 '조리형국'의 집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며, 그 안에 천년동안 제사의 향불이 끊이지 않을 천년향화지지(千年香火之地)로서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는 신령한 샘(靈泉水)을 감추고 있다는 의미로 '포향정(抱香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그는 또 갈록음수형에 대해 "이곳에 처음 묘를 쓰는 사람은 망자의 실덕(失德)으로 입향(立向)과 재혈(裁穴)을 잘못하여 실패하고, 파혈(破穴)이 한번 된 다음에 순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우연히 얻어서 크게 발복할 것이다. 그 시기는 혈 뒤편에서 혈궁을 지키고 있는 늙은 소나무(神樹)가 수명을 다하는 때이다"라고 예언을 하여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갈록음수형의 혈처인 인동장씨선산(정부인완주이씨묘)

'갈록음수형(渴鹿飮水形)'은 지금 인동장씨의 선산 안에 숨어 있는데 혈처의 훼손이 심하여 찾기가 더더욱 어렵다. 더군다나 동래계축(東來癸丑)은 쓸 수 있어도, 용맥이 서쪽에서 이어져 온 서래계축(西來癸丑)은 쓰지 못한다는 풍수지리의 전통적 형기론(形氣論)을 뒤집기라도 하듯이 이곳의 갈록음수형은 서래계축판에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당당히 혈을 맺고 있다.

소조산(小祖山)인 기산(箕山)에서 간인(艮寅) 12절의 원운(元運)이 원입수(元入首)로 위이굴곡하면서 이어지다가 평지낙맥(平地落脈)하여 천전도수(穿田渡水)하였다.

천수 누린 남자 매장해야 발응

그 다음에 현무(玄武) 연주봉(連珠峰)을 마적주사(馬跡蛛絲)로 연결하면서 행룡(行龍)하여 도두입수(倒頭入首)까지의 암맥(暗脈)으로 이어진 까닭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서래계축이라 할지라도 혈의 본성(本性)은 동래계축(東來癸丑)인 간인(艮寅)이다. 따라서 포향정의 '갈록음수형'은 서래계축으로 몸을 숨기면서, 동래계축의 성정을 가진 극귀혈(極貴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갈록음수형'을 두고 세간에서는 인동장씨 집안에서 정확하게 썼다는 설과 아직도 정혈은 비어있다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쪽이 정설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그곳은 천수를 다한 남자의 체백(體魄)이 들어가야 소위 '백자천손(百子千孫)'과 '천년향화지지(千年香火之地)'로서의 발응(發應)을 다할 수 있는 땅이다.

/전종주·호남대 교수·한국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회산과 영화농장

1925년 간척사업…뭍으로 변화
용수 마련차 現 회산저수지 조성

영산강 하류는 바다였다. 내해(內海) 안에는 섬도 있었다. 1745년께 제작된 해동지도 중 무안현지도를 보니 회도(回島)가 보인다. 영산강 옛 하구지점으로 삼았던 양호도 서편에 있다. 바로 백련축제장으로 알려진 회산저수지 근처로 회도가 곧 회산이다.

1925년 일로 동남쪽 인의산 돈도리에서 회도를 잇는 방조제가 완공되어 뭍으로 변했다. 거의 5리나 되는 둑을 축조한 주체는 일본인 히또미로쿠타로(人見鹿太郎)였다. 그는 5천 두락 크기의 에니와(榮和)농장을 차렸다. 간척지 논은 염분제거를 위해 다량의 관개용수가 필요하다. 회산저수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대개 저수지는 산골짜기 협곡을 막아 만든다. 주변에는 쉽게 수원을 확보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다. 1928년 몽탄면 당호리 '파군다리' 일대에 수원지를 마련하고, 10리가 넘는 도수로를 통해 회산저수지에 물을 담게 되었다.

농지개량조합의 저수지 등록부에 따르면 현재 연꽃축제장 쪽 일로 1호제는 높이 3.03m·길이 1,518m·저수량 45만8천톤·수혜면적 172ha이고, 파군다리 쪽 일로2호제는 높이 9.39m· 길이 275m·저수량 111만3천톤·수혜면적 326ha이다.

회산저수지에 설치된 연꽃모양시설물. 뒷산이 회산이다.

영화농장은 지금도 농장마을이라 부른 용산리 57번지에 본부를 두고, 1935년 명산일대 제2농장과 용호동 북편 제3농장을 건설했다. 농장촌 광장에는 대형창고 3동을 비롯하여 보조창고, 정미소, 사무실과 함께 탈곡기 200여대가 수확기에 가동되었다.

정미된 곡물은 협궤철로를 이용하여 돈도리 제방의 수문통 포구에 대기하고 있던 배에 200가마씩 실려 목포로 이송되었다.

영산포와 버금갈 정도로 일제강점기 수탈기지인 곳이 일로(一老)다. 영화농장보다 20년 앞서 남창천의 노루목(獐項浦)을 막아서 생성한 '자방포들'도 비슷한 규모였다. 호남선 철도역까지 통하게 되니 대규모 토목공사의 위력이 압권이었다.

서해안고속국도와 새 전남도청이 다시 일로 일대에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어릴 때 방죽하면 거의 연방죽이라 담담했다. 요즘 연방죽이 특별하게 뜬다. 부여 궁남지를 비롯하여 전주 덕진방죽, 나주 소소리 방죽이 폭염에도 구경꾼들을 모이게 한다.

벌써 10년째를 맞이하는 일로 회산저수지 일대도 연꽃과 인연이나, 불교신자도 아닌 분까지도 야단법석이다. 히또미는 농장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영화'로 지었다. 그는 기독교 신자였다. 농장촌 길가에는 품바공연으로 대중의 가슴을 녹인 김시라의 생가터도 있다. 내 가슴을 연다는 품바의 어원따라 오염되고, 굴절된 한·일관계나, 종교갈등도 정화되길 바란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

■ 전라도 방언 (31)

"그 사람은 보초떼기가 없어서"

전남방언에 흔한 접미사로 '-데기'와 '-보'를 들 수 있다. 이 중에 '-데기'는 대개 '-뎅이'로도 실현되는데, 특히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킬 경우에는 비하의 뜻으로 쓰임이 보통이어서 권장할 말은 아니다. '손목데기/손목뎅이, 발목데기/발목뎅이, 폴(팔)목뎅이, 눈텡이, 빰데기/빰마데기, 배떼기, 귀떼기' 등. 또 신체어 외에 일반 명사에도 붙는다. '보초떼기, 소락떼기, 뽄떼기, 구석떼기, 구성데기, 가마니떼기, 판자떼기, 종웃데기, 문서떼기' 등.

'-보'는 몇몇 명사나 동사·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그것을 특징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인데, 전남방언은 표준어에 비하여 훨씬 생산적이다. '-보'가 결합한 낱말들을 분류해 보면, 우선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예가 있고(땅딸보, 뚱뚱보, 째보, 먹보/귀먹보, 꼴보, 울보), 명사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코보, 잠보, 띠보, 떡보, 배보, 대갈보, 싸움보, 심술보, 웃음보, 털보), 심지어는 부사 뒤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빡보(곰보), 활(할)딱보(대머리)]. '빡보'는 얼굴이 빡빡 얽었다는 뜻에 '-보'가 결합된 형태이며, '활딱보'는 머리가 활딱 벗겨진 모양에 접미사 '-보'가 결합된 낱말이다.

/ 이돈주·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마삭줄

협죽도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성 나무로, 산지 숲속에서 부착뿌리를 이용하여 다른 물체에 붙어 자라거나 비탈진곳이나 담장에 걸쳐서 자란다.

길이는 5~6m 정도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분포하며 개화 시기는 6~8월이다.

/라규채·생태사진가